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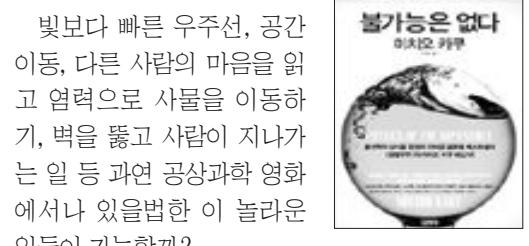
Books

투명인간·순간이동·우주횡단·시간여행...

과학으로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미치오 가쿠 지음



빛보다 빠른 우주선, 공간 이동,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염력으로 사물을 이동하기, 벽을 뚫고 사람이 지나가는 일 등 과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 놀라운 일들이 가능할까?

우주에 대한 온갖 상상력을 펼친 책 '평행이론' (2004)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론물리학계의 세계적인 석학 미치오 가쿠 교수는 신작 '불가능은 없다'를 통해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100년 이내에 전부 가능해질 수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해낸다. 원제 'Physics of the Impossible'.

책은 비록 '불가능'을 다루고 있지만 활기찬 음모론과는 거리가 멀다. 저자는 이의 증명을 위해 '가능성 있는 불가능'을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한다. 즉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물리학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은 제1부류, 물리학 법칙에 어긋나지 않은 것들은 제2부류, 현재의 물리학 법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실현될 수 없는 것들은 제3부류로 나눴다.

가령, 생각만으로 물건이나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인 '염력'에 대해 알아보자.

저자는 일단 이것이 물리학 법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현상을 인정한다. 중력은 인력으로만 작용하므로 생각만으로 물체를 밀어낼 수 없고, 전자기력은 중성인 물체를 움직이게 할 수 없다. 인간의 몸은 기껏 5분의 1 마력 정도의 에너지만 낼 수 있으니 손



미치오 가쿠 교수는 물리학과 인간의 상상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만 있다면 "지구를 넘어 우주의 미래에는 불가능은 없다"고 말한다. 영화 '스타 워즈' 에피소드 6 - 제다이의 귀환(1983) 한 장면.

짓 하나로 사람을 내던지는 '스타워즈' 제다이들의 염력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를 라디오파니 컴퓨터와 연동하면 염력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특정 패턴의 뇌파가 스크린에 나타나도록 조종하고 이 영상을 컴퓨터에 전송해 주변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 염력을 현실화하려 노력하는 과학자들의 실제 사례도 소개한다.

신체 마비 환자들이 원하는 뇌파를 생성해 간단한

분장을 기보드로 입력하는 기술을 개발한 독일 뮤진대 닐스 비르바우어 교수, 대뇌피질에서 운동 근육을 관찰하는 부분에 초소형 실리콘 칩을 넣어 컴퓨터로 신호를 전송하는 '브라이언게이트'를 고안한 미국 브라운대학의 존 도너휴 교수 등이다.

저자는 책 제목처럼 "불가능은 없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초전도체만 있다면 자기장을 이용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빛의 굴절률과 그림자를 조작하는 준물질을 찾아내면 해리 포터의 투명 망토도 만들 수 있다. 물론, 탐험마신을 만들거나 평행우주를 확인하는 것처럼 수백만 년이 걸릴 것 같은 일들도, 어지니 손쉽 없이 영원히 작동하는 기관처럼 영영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자연의 기본법칙이 유한하며, 인간의 능력으로 알아낼 수 있다"며 물리학과 인간의 상상력에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이처럼 단단한 과학 이론과 기발한 상상력을 결합해 미래형 과학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태진하기 때문에 저자의 주장은 활달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첨단물리학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김영사·2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존 판본 인명·오류 수정

교감 원역 난중일기 출간

지 난
2008년 새
로 발굴한
을미년(15
95)의 일기
일부와 기
타 누락 부
분을 새롭게 수록하고, 기존 판
본의 오류를 고쳐 재구성한 '교
감 원역 난중일기'가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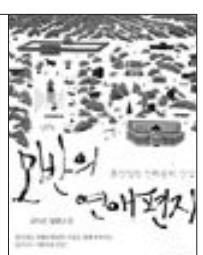
초선 연구가이자 이순신 연구 전문가로 꼽히는 노승숙 교수는 2004년 문화재청이 '난중일기' 초고본(국보 76호)을 관리하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미해독된 글자들을 해독하고, 기존 판본의 인명과 지명 등 오류 100여 곳도 바로잡았다.

이번 책은 '난중일기'를 가장 완전한 형태로 복원한 국내 최초 원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음사·3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모반의 연애편지

김다은 지음



'이상한 연애편지' 등 서간체 소설로 사랑받아온 작가 김다은이 '훈민정음의 비밀'에 이어 역사소설 '모반의 연애편지-훈민정을 이해본의 진실'을 폭넓다.

이번 소설은 '훈민정을 언해본'에 얹힌 또 다른 비밀을 다루면서, 전작을 뛰어넘는 잘 짠 인물과 사건 구성으로 한층 흥미롭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좌에 오른 지 11년이 되는 세조 1465년, 왕의 후궁인 소옹 박씨가 궁 밖의 한 사내에게 연정의 편지를 보낸다. 그것도

왕위 친탈 정당성 위해 훈민정을 언해본 이용한 세조

왕손에게. 소설 속 주인공 소옹 박씨는 '조선왕조실록'에 수양대군의 조카인 귀성군에게 편지 한 통을 썼다가 목숨을 잃었던 실제 인물로 기록돼 있다.

소설은 이 사건과 관련한 인물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따라가며 수양대군이 왕위를 친탈하며 벌였던 숨겨진 계략들을 흥미진진하게 그렸다. 또한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단종의 죽음뿐만 아니라 문종의 죽음에 대한 비밀까지 함께 보여준다.

소설대로라면 세조는 문종의 죽음을 단순한 병사(病死)로 위장함과 동시에, 친탈한 왕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훈민정을 언해본을 매우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훈민정을 언해본이 '월인석보'

에 뮤인 것도 세조가 통치의 정당성을 보장받기 위

해 세운 교묘한 솔책의 결과물이었을 뿐, 애초에 훈민정을 창제자들이 불교 포교를 목적으로 그런 작업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결국, 작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훈민정을 위에 가해진 종교적 혹은 정치적 덫을 벗겨내고 백성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던 한 왕이 가졌던 순수한 창제 목적을 되살려 내고자 힘을 읊을 수 있다.

하지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해 총 64통의 편지로만 구성된 서간체 소설이라 사건의 반복과 나열, 매끄럽지 않은 이야기 전개 등 실험적인 시도에 서오는 한계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생각의나무·1만3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훤 010-802-2532
(광주광역시 산본동, 대인동, 산본서간마을)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촌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883-5221 훤 011-809-5221
(상무지구 이바돔 김자랑 1층)

현대 공인 중개사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토지 매매

- ▶ 경산구 수원동 자연녹지 매매 1,652㎡ (500) 상업 1,100만원
- ▶ 삼수동 2,247㎡ (680) 상업 1,200만원
- ▶ 삼수동 826㎡ (250) 상업 1,000만원
- ▶ 삼수동 3,422㎡ (1,035평) 임무 800만원
- ▶ 동신동 (22,000평) 전답 10만원
- ▶ 나주포 (15,300평) 조경 35만원
- ▶ 동일동 4,469㎡ (1,352) 준주거 350만원

법인동 향토·공장부지

- ▶ 법인동 697㎡ (211평) 일반주거지역, 대지, 매매가 2억4천만원
- ▶ 광산구 1 평 일반주거지역 매매
- ▶ 신수동 1747㎡ (526평) 매도가 1억8천만원

건물매매

- ▶ 풍수성 좋은 원룸 살기 매매 37억원 3,300만원 85억원
- ▶ 동일동 7억원 1,700만원 32억원
- ▶ 삼수동 100억원 5,000만원 200억원
- ▶ 삼수동 25억원 6,500만원 100억원
- ▶ 협곡동 4억원 1700만원 28억원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려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공장 창고·건물 매매

- ▶ 광천동 대지 367㎡ (110평)/건평 1233㎡ (373평)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2~3층, 목욕탕(직영)
상가 일대로 보증금 1억9천만원 월 340만원
대출 4억 8천만원 매도가 12억 5천만원
- ▶ 광천구 우신동 대지 2975㎡ (900평)/건평 594.5㎡ (180평)
비행장 인근, 대형차 진입 가능, 매도가 7억 8천만원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격 있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건물을 추천합니다.

근린생활/월세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시설/월세 대표이사 010-8811-2811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25가지

수백만 건물

전국 100개 이상

전국 100개 이상</div